



학생 교육권·건강권 침해 언제까지...

2024년 5월~2028년 8월 ‘첨단과기 2단지 사업’ 공사
영주교 학부모들 기자회견… “학생·교직원 피해 심각”
JDC “임시보행로 개설 등 공사 영향 최소화 노력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와 인접한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JDC 측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사 기간이 2년 더 남은 만큼 실질적인 대책 없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주고등학교 학부모 측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JDC는 제주시 월평동 84만8000여㎡(약 26만평) 부지에 2단지를 조성 중이다. 2024년 5월 시작된 공사는 2028년 8월까지로 예정됐다.

영주교 학부모들은 “공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안전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교 1학년 학부모인 김효진 씨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고 넘길 게 아니라 원인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과기 2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인근 영주교 학부모들이 “교육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강수양 영주교 운영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학교 시험 기간에도 공사는 계속됐다. 등하굣길에선 대형 공사차량과 같은 공간을 지나야 했다”며 “상수도관 파열로 급식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조기 귀가하는 상황도 두 차례 발생했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현실이 과연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기업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의 설명과 검토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학생 통학로와 공사 동선의 분리와 교실

을 포함한 교내 주요 공간에 대한 비산먼지 차단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JDC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구성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는 공사 중 상수도관 파열과 관련해선 “기존 노후화된 상수도관 대신 학교로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보행로를 개설하고 비산먼지, 소음 등의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기자

제주에서 SFTS 첫 사망자 발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40대 농업 종사자
입원 치료 중 4일 숨져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48)씨는 농업 종사자로, 지난달 27일부터 발열, 홍통, 복통 등 감기 증상을 보였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지난 3일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같은 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으나 4일 사망했다.

제주도는 A씨의 작업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진드기 밀도 조사 및 SFTS 병원체 확인검사를 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제주지역은 오름, 올레길, 과수원 등 야외 환경 특성상 진드기 접촉 기회가 많아 매년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7건의 감염이 발생했다.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진드기에 물렸거나 야외 활동 이후 2주 이내에 38℃ 이상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 농작업 및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연계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오소범기자

“갈등해결 민관협의체 구성은 책임 회피”

제2공항추진위원회
어제 제주도청 앞 집회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5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위성곤 지사가 밝힌 갈등해결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요식행위이자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위성곤 지사는 갈등 해결을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상반기에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 인프라 사업에 권한도 없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뻔한 결론이 예상되는데 갈등 해결을 핑계로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요식행위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지역 정치인들은 일부 환경단체와 반대단체의 목소리에만 편승해 국책사업을 11년째 질질 끌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제대로 된 역할 하나 없이 방관해 온 기회주의적 태도를 반성하고 당장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할 것을 위성곤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교육계, 정무부교육감 임명 미묘한 입장차

제주교총 ‘명분’ 전제 긍정적… 교사노조 ‘신중론’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놓고 도내 교원단체가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고의숙 교육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5일 논평을 통해 고 교육감 취임 이후 정무부교육감 임명 논의가 재개된 것을 언급하며 “현장의 공감과 튼튼한 명분 위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뢰와 명분

이 전제된다면 “(정무부교육감) 임명은 ‘모두를 위한 제주교육’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무부교육감은 전임 김광수 교육감 당시 신설된 직제이지만 이후 현재까지 2년가량 공석으로 남아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으로 시국이 혼란스러운 점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차기 교육감의 몫으로 넘겼었다.

제주교총은 구체적인 전제 조건

으로 도의회와의 협의 사항 이행 등을 거론했다. 제주교총은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2024년 전임 교육감과 도의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으로 결정한 사안이며, 임명에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도록 한 것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무부교육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교육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예산, 우선순위, 명분”이 어긋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추천안에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예산이 1억원인 데 반해 정무부교육감의 6개월치 인건비가 6559만 여원인 점을 비교하며 고 교육감의 공약인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부터 우선 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임명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계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많고, 외부에선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분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학교 신설, 일반고 전환 등 현안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도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